

영암군, 2019 마한축제 '성공 예감'

12~13일까지 마한문화공원서 화려한 부활 어린이 직업체험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 마련

영암군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9 마한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군에서는 도·군의원과 세한대학교 총장, 문화예술단체 등 각계 각층 35명을 대상으로 마한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개최된 마한축제는 지역 및 교통여건과 농번기철 등으로 방문객 수가 적고, 동일 기간동안 마한을 주제로 나주시와 동시에 개최하고 있어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지난 7월, 새롭게 축제팀을 구성하고 마한축제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방문객의 새로운 타켓을 설정하는 등 그동안 노력한

결과, 올해는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할 계획이다.

전남 서남권에서는 최초로 어린이 직업체험 교실인 키자니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직업체험 교실이 유명세를 타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지역에만 운영되어 우리 지역의 많은 어린이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키자니아를 통해 119구조대·과학수사대 CSI·한의원·치과병원 등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많은 어린이가 찾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해까지 마한왕 행사 퍼레이드는 장군과 병사 등 소규모로 진행되어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군에서는 올해 3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마한왕 행사 퍼레이드 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이



벤트를 준비중에 있다.

올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를 컨셉으로 하고 외국인이 대거 참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도내에서 최고의 다문화가정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 결과, 다문화가정 50여명이 출신나라 전통옷을 입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영암읍 청년창업물을 지난 7월, 개장했으나, 마케팅 전략과 행사·

축제 등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한축제에서 청년몰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했다.

전동평 군수는 "내동리 쌍무덤에서 금동관편이 발굴되어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으로 추정되는 큰 성과를 바탕으로 마한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한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자연그대로 포장 디자인 새단장

감귤, 방울토마토 소포장(3kg, 5kg) 디자인 개발

완도군은 청정지역에서 재배하고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감귤, 방울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유통채널 망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은 소비트렌드에 맞게 소포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감귤 5kg, 10kg와 대추·방울토마토 3kg, 5kg 규격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완도자연그대로의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캐릭터를 적용했다.

특히 소안도 감귤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재배하여 국

립공원 마크를 부착,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안도 감귤은 60농가가 27ha에서, 방울토마토는 15농가에서 5ha를 재배하고 있다.

완도군 이기석 농업축산과장은 "기존 포장재가 낡고, 품목별로 난립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되어 대표 작물인 감귤과 방울토마토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며 "트렌드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발로 완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목포시, 15일 부터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목포시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무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주소지에 상관없이 동네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부도 10월 15일부터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임신부 건강보호 및 6개월 미만 영아보호를 위해 목포시 13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증이나 산모수첩을 가지고 방문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무료 접종은 10월 15일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보건소 및 하당보건지소에서만 백신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그 외 유료 접종은(만13세~64세까지) 10월 22일부터 백신소진 시까지 유료(7,500원)로 보건소 및 하당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안군,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 매입 장려금 지원한다

무안군은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에 대한 매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무농약 인증단계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 1,400여 ha에 대한 인증 상향 유도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관내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매입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벼를 매입하는 농협, RPC,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서 유기인증 벼를 일 반벼 보다 포대당(40kg) 10,000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 시

5,000원씩의 장려금을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모델주체에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관료화추진은 물론 생산농가경 영안정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300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달 중순까지 사업신청 및 물량을 확정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무안군의 친환경농산물 벼 인증면적은 1,606 ha로 전체 인증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400여 ha의 무농약 인증면적에 대한 유기인증으로의 상향 인증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강진군, '물 관리 우수기관' 표창

물 산업 활성화와 상생협력 공로 인정



강진군이 물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년 제10회 물 산업미래비전포럼'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

강진군은 식수난이 심한 가우도와 미급수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규모급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소독시설 관리강화를 통한 수질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물 포럼과 환경타임즈 등

이 주최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매년 물 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정석기 소장은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군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상수도 노후 배수관의 현대화와 수질제고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위해 물 관련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황혼의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



진도군 의신면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발적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수 시책의 일환으로 도로변 2곳에 황

혼의 아름다운 꽃동산을 조성했다.

마을 주민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함께 참여한 꽃동산 조성은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힐링공간과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의신면 초상, 송군마을 도로변에 메리골드, 사루비아 꽃을 식재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